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월간동향

2023

07월



목차

I. 주요국 ICT 표준화 관련 정책

- | | |
|---|---------|
| 1.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에 관한 현황 보고(정보통신백서) 발표 | 07월 04일 |
| 2. 독일, 기가비트 전략 이행현황 발표 | 07월 11일 |
| 3. EU, 기술 전환을 위한 Web 4.0 및 가상세계 관련 EU 전략 제시 | 07월 11일 |
| 4. 미국, 국가사이버보안전략 실행계획 발표 | 07월 13일 |
| 5. UN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채택 | 07월 14일 |
| 6. 미국, AI 위험 관리 위한 주요 AI 회사의 자발적 약속 확보 | 07월 21일 |

II. ICT 표준화 기술 동향

- | | |
|---|---------|
| 1. ISO/IEC JTC 1, 공급망의 정보 보안 강화 위한 표준 발표 | 07월 03일 |
| 2. ISO/IEC JTC 1, AI 시스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표준 개발 | 07월 04일 |
| 3. 일본, 일본어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생성형 AI) 개발 | 07월 04일 |
| 4. 독일 DKE, 광섬유 확장을 위한 표준 개발 및 표준 교육 진행 | 07월 05일 |
| 5. ISO/IEC JTC 1, 인터넷 보안 지침 표준 발표 | 07월 11일 |
| 6. ETSI AI 시스템 보안 관련 보고서 3건 발표 | 07월 11일 |

III. 주요 ICT 국제표준화회의 결과

- | | |
|---|-----------------|
| 1. ITU-R SG4 (위성업무) 연구반 및 산하작업반 회의 | 06월 21일~07월 07일 |
| 2. ITU-T SG16 (멀티미디어 분야) 회의 | 07월 10~21일 |
| 3. ITU-T SG13 (미래네트워크 분야) 국제회의 | 07월 17~21일 |
| 4. ISO/IEC JTC 1/SC 24 (컴퓨터그래픽스) 총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 | 07월 10~14일 |
| 5. ISO/IEC JTC1/SC 29 (멀티미디어부호화) 제43차 총회 | 07월 15~24일 |

[참고] 8월 주요 ICT 국제표준화회의 일정



TTA 홈페이지 > TTA 자료 > 정기간행물 > 해외 ICT 표준화 동향정보

I. 주요국 ICT 표준화 관련 정책

1.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에 관한 현황() 발표

일본 총무성은 정보통신의 현황과 정책 동향()을 발표하기 위해 '정보통신에 관한 현황 보고(정보통신백서)'를

보고서의 1부는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강인()의 실현을 향해서' 특집으로, 일본 통신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유통·활용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 현황과 과제, 새로운 기류 분석 및 데이터 유통사회의 실현을 향한 대처 등을 전망한다.

데이터 유통·활용 관련한 새로운 기술 분야로 △Web 3.0,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생성 AI를 주시하고 있으며, 'Web 3.0 연구회 개최', '메타버스 분야 표준화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 중점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부터 상용화, 지식재산권, 표준화, 해외 진출까지 일체적으로 전략적인 추진 방향성이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과 기금 조성 등 새로운 정책을 강구 중이다.

*올 포토닉스 네트워크 기술, 비지상계 네트워크 기술(NTN), 안전한 가상화·통합 네트워크 기술 등

보고서의 2부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시장 동향 및 디지털 활용 현황을 개관하고 일본 정보통신 정책의 현황과 과제, 향후 방향성을 정리한다. 상호운용성 확보 등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표준화 대상 선정에 대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제품 관련 표준화 활동뿐만 아니라 환경, 서비스 수준 등 상위 계층에서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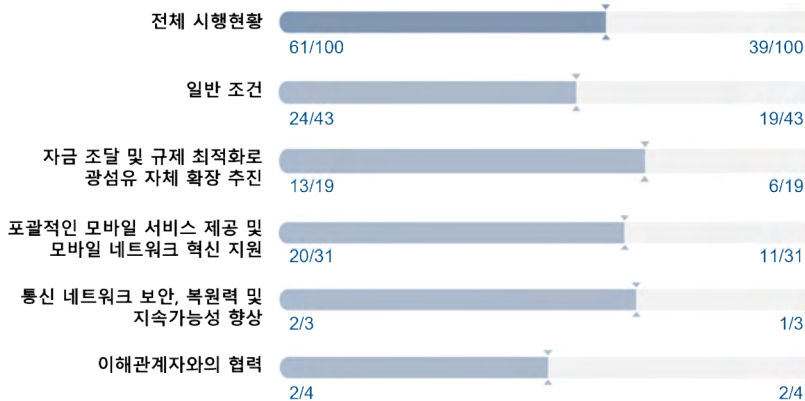
기사원문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tsushin02_02000166.html

2. 독일, 기가비트 전략 이행현황 발표

독일 정부는 2022년 7월 13일에 채택하여 진행 중인 광대역 발전을 위한 '기가비트 전략(Gigabitstrategie)'의 이행현황을 발표하였다. 기가비트 전략의 전반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여행하는 모든 곳에 광섬유 네트워크와 최신 모바일 통신표준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2025년 말까지 적어도 50%의 가정에 광섬유 네트워크를 보급하는 것이 첫 번째 단기 목표이다.

기가비트 전략은 기가비트 확장을 위한 100가지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조건', '조달 및 규제'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번 이행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략은 61%가량 진행되었으며 각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가비트 전략의 전체 및 항목별 이행현황([출처]기사원문 데이터 재가공)

100개 조치 중 표준 관련 내용의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조건
 - [완료] 이동통신 마스트 및 안테나에 대한 국가법에서 규정한 제한 거리의 표준화 및 축소
 - [완료] 기가비트 확장을 위해 현대적 배치 방법을 위한 DIN 표준 및 FGSV (도로·교통 연구회) 데이터시트 생성
 - [완료] 표준 18220 발행을 목표로 DIN에서 표준화 활동 모니터링 및 촉진
 - [완료] 고속도로 인프라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위한 표준개발
- 자금 조달 및 규제 최적화로 광섬유 자체 확장 추진
 - [완료] 운영자 모델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표준화 및 단순화
- 포괄적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네트워크 혁신 지원
 - [완료 및 후속 진행] 모바일 무선 기술 표준화 및 표준화에 건강보호 관련 내용 포함



기사원문

<https://bmdv.bund.de/SharedDocs/DE/Artikel/DG/gigabitstrategie-des-bundes.html>

3. EU, 기술 전환을 위한 Web 4.0 및 가상세계 관련 EU 전략 제시

유럽위원회(EC)는 다음 기술 전환을 주도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Web 4.0과 가상세계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였다.

'2030년 이후 EU 경제 전망('23.3월)'에서는 '디지털화'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동인* 중 하나로, 'Web 4.0'은 상호연결된 지능형 몰입형 세계를 가져오는 주요 기술 전환으로 강조한다.

*△단일 시장 기능, △민간 자본 및 투자 접근성, △공공 투자 및 인프라, △R&I, △에너지, △순환성, △디지털화, △교육, △무역 및 개방형 전략 자치권

전략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4번은 글로벌 표준개발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 1~3번은 'Europe's Digital Decade: digital targets for 2030'과 일치

- [1] 정보 접근성 촉진 및 인재풀 구축을 위한 인력지원 및 기술강화(Skill)
 - 회원국과 협력하여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및 'Digital Europe Programme', 'Creative Europe' 등 프로그램 활용
 - ※ (~'23년 말)시민 패널이 제안한 권고사항 홍보, ('24년 1분기)'Citizen toolbox'를 통해 일반 대중을 위한 지침 개발 예정
- [2] 유럽 Web 4.0 산업 에코시스템 지원(Business)
 - 연구 우수성을 높이고 '가상세계 산업·기술 로드맵' 개발을 위해 Horizon Europe에서 가상세계에 대한 후보 파트너십 제안('25년 시작 예상)
 - Web 4.0 및 가상세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개발지원 예정
- [3] 사회발전과 가상 공공서비스 지원(Government)
 - 'DestinE', 'Local Digital Twins'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구개발 및 정보에 입각한 공공정책결정 지원
 - 두 가지 플래그십 출시 예정: △CitiVerse(도시계획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몰입형 도시환경), △가상인간쌍둥이(임상결정과 개인치료 지원을 위한 인체 복제)
- [4]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표준개발
 - 전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EU 비전과 가치에 따라 Web 4.0 표준 촉진

전략은 '가상세계에 대한 EU 위원회의 작업'을 기반으로 작업되었으며, 시민 패널에서 수립한 23가지 권고사항('23.2~4월)이 본 전략에 포함되었다.



기사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3718

참조

[1] Developing fair and desirable European Virtual Worlds (<https://citizens.ec.europa.eu>)

[2] Europe's Digital Decade: digital targets for 2030 (<https://commission.europa.eu>)

4. 미국, 국가사이버보안전략 실행계획 발표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가사이버보안전략(NCS)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써 국가사이버보안전략 실행계획(NCSIP)을 발표하였다. 실행계획은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여 자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부터 점차 증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숙련된 사이버 인력을 구축하는 것까지 65개 이상의 이니셔티브를 자세히 설명한다.

실행계획은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의 5개의 필라와 27개의 전략적 목표에 대응하여 이니셔티브와 책임기관, 기여기관, 완료 예상날짜 등을 제시한다.

- [전략목표 1.1]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지원을 위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수립’을 위해 NIST의 프레임워크 등 지침 활용
 - (이니셔티브 1.1.3) 프레임워크 및 국제 표준의 기관사용을 늘려 규제 조정을 알림, NIST, CISA, SRMA, 1Q FY25
- [전략목표 1.2] 공공-민간 협력 확대
 - (이니셔티브 1.2.1) 안전한 기본설계 및 기술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확장, CISA, NIST, NSF, SRMA, 4Q FY24
- [전략목표 4.1] 인터넷 기술 기반 확보를 위해 표준개발 프로세스에 지속적 참여 및 표준화기구 지원
 - (이니셔티브 4.1.3) 기본 인터넷 인프라 기능 및 기술의 개발, 표준화 및 채택 가속화, NIST, 1Q FY24
 - (이니셔티브 4.1.4) 기본 인터넷 인프라 기능 및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가속 및 채택 지원
- [전략목표 4.3] 포스트양자 시대를 위한 준비
 - (이니셔티브 4.3.3) 포스트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 표준화 및 전환 지원, NIST, 1Q FY25



기사원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7/13/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publishes-national-cybersecurity-strategy-implementation-plan/>

참조

미 백악관, 국가사이버보안전략 2023 발표 - 표준 활용 강조, 해외ICT표준화동향정보('23.03), p.9

• 국가사이버보안전략('22.3)

미국이 사이버공간에서 역할 및 책임,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에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1)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고,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을 더 많이 지게 함
2) 사이버보안에 대한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인센티브 증가

5. UN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채택


제53차 UN 인권이사회(UNCHR)는 한국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본 결의는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되었으며, 2021년 제47차에 이어 세 번째 결의이다.

우리나라 외에 오스트리아, 브라질, 덴마크, 모로코, 싱가포르가 결의 핵심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태국 등 5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광범위한 지지 하에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는 인공지능의 인권적 함의를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 결의로,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원칙에 대한 국가 간 공통된 인식을 도출한다.

한편 인권이사회 결의안 47/23에 따라,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기술표준 설정 프로세스와 인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A/HRC/53/42)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국가, 기업, 표준설정기관(SSO) 등 각 주체가 표준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인권 관련 의무를 설명한다.



 기사원문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92&page=1

6. 미국, AI 위험관리를 위한 주요 AI 회사의 자발적 약속 확보

백악관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7개 기업*으로부터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한 자발적인 약속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AI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술이 자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이 산업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Amazon, Anthropic, Google, Inflection, Meta, Microsoft, OpenAI

기업들이 즉시 이행하기로 한 약속은 AI의 세 가지 원칙인 △안전(Safety), △보안(Security), △신뢰(Trust)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모범 사례와 표준을 공유하고 기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표준 설정 기관과 협력하는 등 표준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AI 권리 장전을 위한 청사진', '국립 AI 연구소 설립', '국가 AI R&D 전략계획' 등과 같은 조치의 일부로, 혁신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부 주도의 행정 명령을 개발 중이며 미국의 책임 있는 혁신 주도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사원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7/21/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secures-voluntary-commitments-from-leading-artificial-intelligence-companies-to-manage-the-risks-posed-by-ai/>

II. ICT 표준화 기술 동향

1. ISO/IEC JTC 1, 공급망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표준 발표

물리적으로 분산되고 다층화된 공급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제품 및 서비스 인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지침 ISO/IEC 27036-3을 발표하였다.


- 정보 보안 위협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위험관리, △위험에 대한 대응, △정보 보안 프로세스 및 관행 통합 등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중점을 둠
- 표준 적용 필요성
 - 공급망 내 가시성 및 추적성 향상으로 정보 보안 기능 강화
 - 제품 및 서비스 관련된 출처 및 관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정보 보안 요구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 가능
 - 정보 보안 손상 발생 시, 잠재적인 손해 및 관련 행위자에 대한 정보 접근으로 사고 대응 및 대처 가능

2. ISO/IEC JTC 1, AI 시스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표준 개발

IEC와 ISO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어 시스템이 더욱 복잡해지고 일상생활에 통합됨에 따라 모든 품질 표준 및 사양을 충족할 수 있는 국제 표준 ISO/IEC 25059를 발표하였다.

- SQuaRE(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 사항 및 평가) 표준으로 요구사항, 설계, 테스트, 유지관리 및 평가와 같은 소프트웨어 품질의 다양한 측면을 다룸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ISO/IEC 표준에서 이미 사용된 방법론 채택
- 표준은 AI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하는 품질의 모델 정보만 제공하며, AI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침과 구체적인 측정 및 메트릭은 별도의 기술 사양(TS)에서 개발 중
 - SC 42는 2024년 TS 게시 예정으로, SQuaRE 시리즈의 이러한 모듈식 아키텍처는 다양한 도메인과 애플리케이션에 맞춘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SQuaRE 표준을 개발하는 위원회 SC 7과 공동작업그룹 구성



 기사원문

<https://www.iec.ch/blog/cyber-security-strengthening-information-security-supply-chains>



 기사원문

<https://www.iec.ch/blog/new-international-standard-ensuring-quality-ai-systems>

II. ICT 표준화 기술 동향 (계속)

월간동향
2023.07

3. 일본, 일본어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생성형 AI) 개발

NICT(국립정보통신연구기구)는 독자적으로 일본어 웹 텍스트를 수집하여 400억 파라미터 규모의 일본어 특화 언어모델(생성형 AI)을 개발하였다. 질문에 회답 및 요약, 논문 요지 생성, 번역 등이 가능하며, 현재 1,790억 파라미터 규모의 언어모델을 학습 중이다.

- 2022년 ChatGPT 등장 이후, 생성형 언어모델의 유효성이 주목되어 NICT도 개발에 본격적으로 임함
 - 이전에는 ‘대규모 웹 정보 분석 시스템 WISDOM X’, ‘고령자용 대화 시스템 MICSUS’ 등 판별형 AI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판별형 AI 기술 또한 고도화 예정
- 시나리오와 가설을 생성하는 창작, 브레인스토밍 등의 활용 및 기존 시스템 적용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확대할 예정



 기사원문

<https://www.nict.go.jp/press/2023/07/04-1.html>

4. 독일 DKE, 광섬유 확장을 위한 표준개발 및 표준 교육 진행

독일 DKE는 2030년까지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모든 곳에 광섬유를 연결하는 것이 목표인 ‘기가비트 전략’ 달성을 위해,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 VDE 지침 0800-720은 '23년 4월 발표되었으며 광섬유 네트워크의 표준화된 확장에 사용되는 요소에 대한 재료 요구 사항을 다룸
 - 지자체 유틸리티, 네트워크 운영자, 프로젝트 후원자 및 설치 회사를 위한 광대역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 포함
- 광섬유 확장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표준화 교육 진행
 - Gremienverbund Brettband에서 표준화된 교육 모듈에 대해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세미나 진행 중
 - VDE 가이드라인 0800-200에 의해 2023년 4월부터 시작



 기사원문

<https://www.vde.com/de/presse/pressemitteilungen/pm-glasfaser-ausbau>

5. ISO/IEC JTC 1, 인터넷 보안 지침 표준 발표

ISO/IEC JTC 1/SC 27이 작업한 표준 ISO/IEC 27032는 인터넷 보안에 대한 지침으로 보안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및 비기술적 제어를 모두 제공한다.

- △인터넷보안, 웹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사이버보안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인터넷보안 개요, △사용자 식별 및 역할 설명, △일반적인 인터넷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높은 수준의 지침 등 제공
- 인터넷 위협에 대해 사회공학 공격, 제로데이 공격, 개인정보 공격, 해킹, 악성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규정
 - ※(사회공학 공격) 중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악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속이는 데 사용되는 조작 기술
 - (제로데이 공격) 공급업체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직 패치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
 - (개인정보 공격) 개인식별정보(PII)와 같이 민감한 기밀성 또는 개인 정보보호를 손상시키는 것 목표
 - (해킹)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무단 액세스, 침입 또는 조작
 - (악성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피해를 주고 보안을 손상시킬 수 있는 맬웨어, 스파이웨어 및 잠재적으로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포함

6. ETSI AI 시스템 보안 관련 보고서 3건 발표

ETSI의 ISG SAI는 표준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가 AI의 위협과 취약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는 그룹으로 3개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TSI GR SAI 007) AI 처리의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 AI 플랫폼의 설계자와 구현자가 AI 처리의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식별
 -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고(설명 가능성), 검사에 개방(투명성)할 수 있도록 정적 및 동적 형식을 모두 다룸
- (ETSI GR SAI 009) AI 컴퓨팅 플랫폼 보안 프레임워크
 - 보안 프레임워크는 AI 컴퓨팅 플랫폼의 보안 구성요소와 실행되는 보안 메커니즘으로 구성
- (ETSI GR SAI 013) 개념 증명 프레임워크
 - 다중파트너 개념증명(PoC) 생성 시 필요한 경량 프레임워크 정보 제공



기사원문

<https://www.iec.ch/blog/cyber-security-addressing-internet-security-issues-and-mitigating-common-security-threats>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2259-etsi-releases-three-reports-on-securing-artificial-intelligence-for-a-secure-transparent-and-explicable-ai-system>

III. 주요 ICT 국제표준화회의 결과

월간동향

2023년
07월

1. ITU-R SG4 (위성업무) 연구반 및 산하작업반 회의

■ 주요 결과

- (WP4A) 위성업무 관련 의제 및 GSO 보호 방안 연구 대응 등 논의
 - ‘신규 권고 예비 초안’ 및 ‘28GHz 대역 항공기 ESIM의 전력속밀도 제한값 준수 여부 검증방법’ 관련 한국 측 수정 제안 반영
- (WP4B) IP 기반 및 위성뉴스수집(satellite news gathering; SNG)을 포함하는 고정, 방송 및 이동위성업무에 대한 시스템, 무선규격, 성능 및 가용도 목표 등 논의
 - OBP 위성 기술 및 운용적 특성 연구 관련 질의 수정 임시초안 제안 반영
- (WP4C) L대역 MSS/IMT 인접대역 호환 연구, 권고서 개정, EESS 및 RNSS 간 호환 연구 등 논의



- 장소: 스위스 제네바
- 차기회의: '24년 (미정)

2. ITU-T SG16 (멀티미디어 분야) 회의

19명의 국가대표단과 9명의 섹터회원이 참가하여 디지털 헬스, 디지털휴먼 대화 서비스 요구사항, 인공지능 기반 안전진단 플랫폼, 응급상황 응답자 지원 시스템 등 12건의 국가기고서 및 10건의 섹터기고서를 통해 7건의 신규표준 개발과제 채택 및 권고안 3건의 승인 반영

■ 주요 결과

- (SG16 조직 현황 및 권고 제개정 현황) 199개 제출 기고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 TAP 권고승인 절차에 따라 5개의 권고안이 Determination 되었고, AAP 권고승인 절차에 따라 32개의 권고안이 Consent 되었으며 39개의 신규 표준개발 과제가 승인됨
- (차기 연구회기 SG16 표준화 활동 방향) 우리나라는 차기 연구회기에 메타버스 플랫폼 및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화를 전담하기 위한 신규 라포처그룹 신설 제안과 메타버스 이슈에 대한 선도 연구반(Lead Study Group) 역할을 추가할 것을 제안



- 장소: 스위스 제네바
- 차기회의: '24년 4월 15~26일 (프랑스 헨스)

III. 주요 ICT 국제표준화회의의 결과 (계속)

월간동향
2023.07

3. ITU-T SG13 (미래네트워크 분야) 국제회의

■ 주요 의제

- (WTSA-24 준비 관련) SG13 산하 연구과제 구조조정(안) 및 추진 방향 논의
- (신규 WI 채택) 양자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총 1건 추진
- (미래네트워크 워크숍) 양자통신, Web3.0 등 2030년을 향한 미래 네트워크 분야 주요 및 신기술 논의



■ 장소: 스위스 제네바

4. ISO/IEC JTC 1/SC 24 (컴퓨터그래픽스) 총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

■ 주요 결과

- ISO/IEC 9234(VR/AR/MR 기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위한 정보 모델링) 작업기간 9개월 연장 승인
- 우리나라 전문가가 제안한 PWI 4건, NP 추진 4건 승인
- MA^{*}/RA^{**} 유지 여부 검토 결과, RA 지위는 삭제하고, MA 지위는 ISO/CS(중앙 사무국)과 추가 논의키로 함
 - *MA(Maintenance Agencies): 위원회가 빈번한 수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개발하는 경우 MA를 지정하여 관리
 - **RA(Registration Authorities): 위원회가 식별자 코드를 지정하는 등록 조항을 포함하는 문서를 개발하는 경우 RA를 두어 관리
- SEDRIS, Web3D 컨소시엄 등 SC 24와 약 30년 이상 표준개발에 협력해온 외부 기관들과 리에종 카테고리 A 관계로 협력을 지속하되, 각 기관이 개별 저작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JTC 1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 검토 요청키로 함



■ 장소: 호주 시드니

■ 차기회의: '24년 7월 (프랑스)

III. 주요 ICT 국제표준화회의의 결과 (계속)

월간동향
2023.07

5. ISO/IEC JTC1/SC 29 (멀티미디어부호화) 제43차 총회

- 주요 결정 사항(Resolutions)
 - 수임 중인 WG3 및 AG3의 한국 컨비너 임기 연장 결정(2024~2026)
 - 2025년 JTC 1/SC 29 총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 한국 개최 결정



- 장소: 스위스 제네바
- 차기회의: '24년 2월 6~8일 (온라인)

8월 주요 ICT 국제표준화회의 일정

회의기간		장소	표준화기구	세부조직	분야
23. 8. 28.	23. 9. 1.	스위스 제네바	ITU-R	WP 6C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품질평가
23. 8. 29.	23. 9. 8.	한국 고양시	ITU-T	SG/WP 17	정보보호
23. 8. 30.	23. 9. 6.	스위스 제네바	ITU-R	WP 6A	방송신호 전송 등

※ 참고사이트

- ITU : <https://www.itu.int/en/events/Pages/Calendar-Events.aspx>
- ISO/IEC JTC 1 : <https://www.iso.org/committee/45020.html>